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은 뒤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 그리고 외워 보세요.

**칼 융**

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두 가지 화학 물질이 접촉하는 것과 같다.
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완전히 바뀌게 된다.

**찰리 채플린**

출처: 조선일보 2015년 8월 29일

삶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.

**『미공비급』**

출처: 조선일보 2017년 2월 8일

돈이란 참으로 사람을 죽이는 물건인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.

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.